

# 미국 전역으로 팔레스타인 연 캠퍼스 점거를 우리도 팔레스타인 연대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점거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뉴욕의 컬럼비아대 학생들이 캠퍼스에 텐트 수십 동을 설치하고 점거 시위를 벌인 것이 불씨가 됐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한다. “3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죽는 것이 ‘정상’이고, 용인 가능한 일이고, 돈 되는 일로 여겨지는 사회를 받아들이길 거부한다.” “컬럼비아대학교가 우리 등록금과 기부금을, 죽음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데에 더 이상 공범이 될 수 없다.” 이들은 스스로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

# 확대되는 대 지지하자! 행동에 동참하자!

제 바이든은 가는 곳마다 “제노사이드 조(학살자 조바이든)”를 규탄하는 시위대를 맞닥뜨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서방의 지배자들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유대인 혐오”라는 얼토당토않은 도덕적 비난을 퍼붓지 않으면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76년 동안 식민 지배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짓밟고 내쫓고, 불과 200일 동안 3만 4000명이나 학살한 천인공노할 반인류적 범죄를 대체 어떻게 변호할 수 있겠는가!

시온주의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유대인 혐오가 아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농성에 유대인 학생들도 동참하고

파르트헤이트에 맞섰던 자랑스러운 전통 위에 서 있으며, “팔레스타인 인 인종청소와 학살을 위한 공모에 맞서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밝혔다.

어처구니없게도 컬럼비아대 당국은 경찰력을 동원해 학생 108명을 체포했다! 경찰이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대규모로 체포한 것은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 이후 처음이다. 대학 당국은 정학과 기숙사 퇴출 등의 부당 징계로 학생들을 위협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인종학살] 투자 철회와 징계 사면, 공모 종식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팔레스타인 해방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며 계속해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자 하버드대, 예일대, 뉴욕대, 미시간대, UC버클리 등 곳곳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고무하며 시위와 점거에 나서고 있다. 대학 교직원들과 지역 주민들도 학생들에 연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스라엘 비판은 유대인 혐오 아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든든한 동맹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학생들을 체포하고, “반유대주의” 낙인을 찍으며 정당한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과연 인종 학살 공범의 행태라 할 만하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지상전 계획을 승인했다. 미 의회는 36조 원에 달하는 이스라엘 군사 지원 예산안을 의결했다. 미국 내에서 학살 지원에 대한 비판 여론은 날로 커져, 이

있다. 이들은 “억압과 불의에 맞서는 유대교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참가한다고 밝혔다. 컬럼비아 대학의 농성장에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의식과 무슬림들의 기도 시간이 평화롭게 공존한다.

한국에서도 대학 당국과 정부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미국 대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인들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자!

2024년 4월 25일



English Ver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을 팔로우하세요!**

@ws.youthstu   @ws.youthstu   @ws\_youthstu  
 010-5443-2395   <https://youth.workerssolidarity.org>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집회에 참가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32차 집회·행진  
**이스라엘은 라파에 지상군 투입말라!**  
**인종 학살 당장 멈춰라!**

-4월 27일(토) 오후 2시 / 광화문 교보문고 앞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